

<서평>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Philip C. Stine, Leiden: Brill Academic Press, 2004)

유지미*

1. 서론

이 책은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BS)가 성서문헌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BL)와 손잡고 펴낸 성서 번역자 나이다(Eugene A. Nida)의 영향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다는 ABS의 혁신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한 진보를 이루어낸 사람으로 기억된다. 다양한 언어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다의 작업 덕분에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성서를 만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이 두 종류의 독자를 상정한다고 한다. 첫째는 성서 번역자, 교회 역사가, 성서학자 등 성서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교차문화적 언어학, 커뮤니케이션 등 번역학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두 그룹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의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자는 이를 위해 나이다가 성서 번역에 기여한 점, 그가 연구했던 전체 이론의 내용, 모든 후속 저작을 형성해 준 예제들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저자는 또한 성서 번역자들이 책 내용을 통해 번역학에 관한 새로운 관심의 소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원래 목적 자체가 나이다의 삶의 실제와 상세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비록 삶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긴 하지만, 그 보다는 나이다 자신의 저작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책 전반에 걸쳐 나이다의 저작 내용 소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나이다라는 인물보다는 그가 성서 번역 관련 기관에 봉직하면서 그 동료들이 이루어낸 번역에서의 혁신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 장로회신학대학 교 초빙교수, 신약학.

2. 〈제1부: 서론〉

저자는 책의 서두에 아프리카의 체바라(Cebaara) 신약성서가 번역되던 날의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소개한다.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성서가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과 감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이다가 평생 몰두한 성서 번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수백의 언어 가운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매우 다양한 배경과 교육 수준을 가진 번역자들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를 정확하게 번역해 왔다. 사실 지난 50년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은 기독교 성서에 접근해왔다. 이 발전이 이 사람들의 삶과 교회의 성장에 끼친 영향은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은 성서를 번역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로운 방식의 번역을 가르쳤고, 번역자를 훈련하고 돕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번역자들이 더 나은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다양한 교회와 교과로부터의 번역자 연맹이 결성되었고, 번역자들에게 가장 잘 된 원어 본문을 제공하는 학문적 작업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서 번역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은 곧 나이다의 공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이다는 성서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 이론과, 교수법, 번역 실습 등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성서 번역에 대한 그의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여러 가지 번역 관련 훈련 과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언어학적으로 이견을 가진 번역자들이라도 그것을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 전에는, 성서 번역의 세계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나이다의 이론과 접근은, 그가 수년 간 여행하며 가르치며 그것들을 보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지지자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의 놀라운 능력은 그 접근법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아무리 의심 많고 회의적인 사람들이라도 그와 함께 일하면 조력자가 되곤 했다. 이 감화력은 그가 강연과 컨설팅에서 보여주는 확신 있는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또 그의 발표와 토론에서 발휘되는 에너지와 역동성에서도 기인했다. 그의 웅변 능력은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드러났고, 일찍이 뛰어난 토론가(outstanding debater)라 불릴 정도였다.

3. 〈제2부: 나이다 이전의 성서 번역〉

저자는 성서 번역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진행된 역사를 알아야 한

다고 말한다. 사실상 저자는 나이다가 ABS에 참여한 때부터 성서 번역이 정립되고, 이 분야의 전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성서는 교회의 생애, 선교,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1세기의 사도들과 현대 교회 지도자들 모두 성서를 복음화와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또한 영적 공급과 방향성의 근원으로 생각해 왔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시간과 장소에서 기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성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 유니온신학교의 스크록스(R. Scroggs)는 신약성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문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것(신약성서)이 ‘역사적 실재(historical reality)에 대한 기초적인 어젠다(agenda)를 제공해 왔고, 기독교가 역사적 실재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 왔다.’(1995)의 의미를 담고 있다.

1세기에 기독교가 보급되면서, 교회는 성서 번역을 준비했다. 5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몇 가지 번역이 존재했다. 또 이집트의 콥틱어, 남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어 번역도 있었다. 4세기에 율필라스(Ulfilas)는 다누브 지역의 고딕 언어로 번역을 준비하기도 했고, 7세기에는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번역을 했으며, 9세기에는 아라비아어, 14세기에는 페르시아어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왜 성서 번역은 교회의 확장과 함께 진행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로 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일 주요 언어를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배웠다 해도, 히브리어의 복잡성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둘째, 수백만의 사람에게 새 언어를 가르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새 언어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대부분 교회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 된다. 번역 작업은—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돈은 훨씬 적게 든다.

하지만 성서를 번역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인 것이다. 사네(Sanneh)는 기독교가 세계 종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언어와 문화 가운데 소통될 수 있고,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유일한 종교라는 점을 지적한다. 교회 초기에서부터 새신자들은 예수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는 않았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코이네 그리스어, 즉 알렉산더 대왕이 동지중해 세계에 소개했던 그리스어의 평범한 상업적 형태를 사용했다. 따라서 복음서조차도 예수의 설교와 가르침을 번역했다. 분리된 단편들을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말했던 언어로 보존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없었다. 바(J. Barr)는 예수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전혀 <원래적인>(original) 것이 없다. 매우 일찍부터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네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번역된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가 번역된(translated) 종교라면, 의미로 보면, 그것은 분명 번역이 가

능하다(translatable)는 뜻이다. 실제로 이 사실은 교회의 선교적 성격에 자극이 되었다.

18세기 들어 세계 선교가 가속화되면서, 그들은 설교했고, 가르쳤고, 치유했고, 건물을 세웠다. 그리고 성서를 번역했다. 20세기 말에는 교회의 지리적 중심이 더 이상 서부유럽이나 북미가 아니었다. 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의 토착화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활성화됨으로써 교회는 더 이상 백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때 성서 번역은 서방의 인쇄술 발명과 성서공회 운동의 출범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없었다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성서공회는 출판과 번역 성서의 보급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교회와 선교 본부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 시기에 번역자들은 그 언어가 쓰여진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 성서공회들 중 한 곳에 원고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보관소가 부족했기에, 1960년대에는 이 보관소나 사무실이 독립적인 성서공회로 변화되었다. 19세기 초반 뉴욕, 암스테르담, 런던 성서공회 인사국에서는 정식으로 이 번역들을 점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업의 질을 심사숙고하고 번역들이 신학적 편견을 표방하지 않기를 바랐다. 1826년 영국성서공회는 모든 ‘외국어 번역’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두 지부에서의 당황스런 발견을 검사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통해,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 식민지 관리들, 사업가들, 학자들은 자신의 것과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만났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배웠다. 인류학 후에는 언어학이 이 경험으로부터 성장했다. 어떤 선교사들과 학자들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위해 기념비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번역자들은 그들 사역에 큰 영향을 주는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훈련이나 감각들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했다.

미국 선교사였던 타운센드(W. C. Townsend)는 이 필요를 절감했다. 1917년 구아테말라, 멕시코, 페루에서 사역했던 그는 성서보급 사역을 하면서 소수 민족들을 위한 자국어 성경이 없음에 자극받아 구아테말라어(Cakchiquel)로 신약성서를 번역했다. 번역 작업 중 언어적인 접근에 고생했던 그는, 선교사들을 위한 전문적 자료를 소개하기로 결심한다. 1934년, 타운센드는 신입 선교사들을 위한 하계 훈련 캠프를 조직하고, 언어학과 성서 번역을 특화시켰다. 타운센드는 졸업자들이 ABS같은 기관에서 일하기를 기대했고, 별도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교가 성장하면서 독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2년에 ‘하계 언어학 연구소’(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L)가

출범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신약성서 번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선교의 최전선에서 성서 번역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성서공회와 하계 언어학 연구소, 양 기관은 성서 번역 사역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차이점이 존재했다. SIL은 복음적 기관이었고, 성서가 인간의 구원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구약보다 신약 번역에 치중했다. 성서가 아닌 언어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 언어도 연구했다. 반면, 그들 입장과는 다르게 성서공회는 전체 성서를 번역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초점은 성서 전체가 사람과 문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다 넓은 신학적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서공회가 성서 전체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이유는 복음적 이유와 함께 영적 양육과 성장의 도구라고 생각한 데 있었다. 따라서 성서공회는 그것을 사용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번역을 착수하지 않았다.

SIL은 번역 지향적이었다. 선교사들은 성서가 없는 지역에 돌아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분석하고, 기록 체계를 발전시키고, 글 읽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원주민의 도움으로 번역을 완성했다. 이러한 집중적 사업의 결과 SIL은 언어학 부분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3,500개 이상의 언어를 정리하고, 800개 이상의 사전과 문법책을 썼다.

성서공회는 컨설턴트 수가 훨씬 적고, 언어학보다는 성서학 분야의 학위자가 많다. 그러나 성서공회는 SIL과 달리 성서를 출판했다. 성서공회는 번역과 개정을 맡지 않고, 그 작업을 그 언어 지역에 속한 교회와 선교 본부에 주었다. 전통적으로 성서공회는 이 작업에 재정적 보조금을 지원한다. 더욱 최근에는 나이다의 혁신 덕분에 기술적인 지원까지 제공한다. 성서공회는 이 번역을 인쇄하고 판매하고, 이 작업을 교회가 원하는 한 지속할 책임을 갖는다.

1960년대까지는 성서 번역 작업이 대부분 SIL과 관련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 컨설턴트와 원주민이 팀을 이루어, 성서 번역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한 성서공회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 컨설턴트들과 원주민들은 언어학과 음성학의 훈련을 받는데, 따를 만한 번역의 일반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수한 지침들이 많은 난제들을 돕긴 했지만 SIL도 성서공회도 번역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다. 1960년대까지는 성서공회의 번역 부서를 제외하고는, 번역자들은 홀로 몇 명 되지 않는 전문가들이나 컨설턴트와 더불어 고생했다. 그들은 원고를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에 보냈고 심사자들이 완벽성과 일치성을 체크하고 출판했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성서적 원어 형태를 따르거나 영어, 불어, 스페인어

같은 현대 유럽 언어 형태를 따르든지 했다. 이 번역들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성서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성서학적, 신학적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제한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4. 〈제3부: 새로운 접근〉

성서 번역을 위한 기관들이 자리를 찾으면서, SIL의 ‘위클리프 캠프’(Camp Wycliffe)가 1934년 설립되고, 설립자인 타운센드의 조카가 합류하게 되었다.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A)에서 공부 중이던 그는 한 성서 모임에 가입 중이었는데, 성서 번역에 대해 갖게 된 도전을 나누던 중 같은 모임에 속한 나이다에게 이 내용이 전해진다. 그 또한 UCLA 학생으로 4살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한 그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언어 훈련을 원하고 있었고, SIL에 가입하게 된다. SIL에서 알게 된 파이크(Pike)와 학문적으로 깊은 교분을 갖게 된 나이다는 1936년부터 어형론과 구문론을 가르쳤다.

나이다는 멕시코에 현지어 연구를 위해 갔다가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1939년 USC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41년 나이다는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시작하는데, 언어학 대가인 프라이스(C. C. Fries)의 지도를 받는다. 이미 파이크는 음성학을 공부 중이었는데, 1943년 박사 학위 공부를 마치게 된다. 그는 영어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학위 논문에서, ‘직접 구성 성분 분석’(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으로 알려진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영어 구문론 개관’이라는 그의 학위 논문은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어떤 주요 언어의 최초의 전면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타운센드는 당시 SIL과 ABS 두 기관 모두 나이다의 능력과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나이다로 하여금 SIL에서는 강의를 계속하고, ABS에서는 기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감독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두 기관에서 봉사하다가, 후에 SIL을 사임하고 ABS 전임으로 전념하기 시작한다.

나이다의 첫 혁신은 그 자신이 현장에 나가서 언어와 번역 문제를 토의해 줌으로써 해외 번역자들을 돕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현장에서, 그는 그 언어에 맞게 의미가 서로 통하도록 내용들을 적절히 추천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진정한 번역의 문제를 더 높은 강도로 드러나게 했다. 그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

결했다. 많은 문제들은 관용구와 비유적 말하기, 또 그 문화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낯선 물건이나 관습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떤 문제는 대상언어와 원천언어의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서 접하면서, 나이다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뉴욕이나 런던의 어떤 심사자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번역자들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나이다는 그의 첫 번역 출판물 *Bible Translating: An Analysis of Principles and Procedur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boriginal Language* (1947)을 발간한다. 그의 책 *Bible Translating*은 본문 분석의 기술이나 번역의 실제적 기술을 제공하는 책이라기보다는, “힌트와 제안 모음집”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서 번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지침을 준 것이다. 첫째, 최근접 동등성(closest equivalent)으로 번역하는 개념에 집중하며, 둘째, 다양한 비유럽 언어들로부터 생겨나는 번역의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제공하며, 셋째, 언어학자가 더 체계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던 여러 언어의 의사소통의 특징들을 소개하며, 넷째, 번역에 있어서의 사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매우 정밀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실용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견실한 번역의 실재를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Principles of Translation as Exemplified by Bible Translating” (1959) in *On Translation*에서는 성서 해석의 근원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민족언어학(ethnolinguistics) 모델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번역에 대한 그의 정의를 암시하고 있었다. 나이다는 어떠한 번역도 원천언어(source language)가 인간 경험을 모방하는 방식과 정확히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어떤 정보는 항상 누락되고, 어떤 것은 첨가되고, 어떤 것은 왜곡된다. 나이다에 의하면, 번역의 정의는 번역자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다른 언어들 형태 가운데에서 동등성의 문제를 검토했던 *Bible Translating*의 몇 가지 예를 반복한다. 그는 양 출판물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메시지가 전이될 때 구문 적용을 잘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절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지만, 자연적 동등성의 기준에 따른 가까운 근사치는, 번역들이 충분히 다른 구문적 구조에 민감하다면, 또 ‘문화적 다양성을 향한 분명한 시각에서 비롯된다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책은 현대 번역 연구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이다는 끊임없이 그의 접근 방법을 다듬었다. 그는 기쁘게 비판을 경청했고, 그것을 기초로 자료들을 기꺼이 수정했다.

더 나아가 나이다는 다음 책들에서 그의 이론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TAPOT, 1964)와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TASOT, 1969)이 그것이다. 전자에서 나이다는 그의 유명한 번역 이론인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소개한다.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내용 동등성은 형식 동등성보다는 더 역동적이다. 내용 동등성에서 번역자는 발신자 언어를 수신자 언어와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수신자와 메시지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나이다의 해안은 번역을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보았다는 데에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써 제시한 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메시지가 발신자(source), 내용 또는 의미, 수신자(receptor)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나이다는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언어학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이다는 후에 어떻게 본문과 대상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기호학(semiotics)에 의지하기도 했다.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ories of Translation”(1976)에서 번역은 인류학적 기호학의 더욱 광범위한 분야 중 한 부분이 된다고 역설했다. *Sign, Sense, and Translation* (1984)에서는 기호학 개념을 의미에 관한 기본적 접근으로 통합시켰다. 그는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1986, 공저 J. de Waard)에서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정리했다. 발신자-메시지-수신자 모델을 의미심장하게 변경하긴 했지만, 번역을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시각은 계속되었다.

나이다의 이론과 번역 모델은 몇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모든 언어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둘째, 한 언어로 말해지는 그 어떠한 것은, 형식이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한, 다른 언어로 말해질 수 있다. 셋째, 성서 언어는 다른 어떤 자연 언어와 같은 한계에 놓여 있다.

나이다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내용 동등성’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그는 그 용어가 상황의 역할과, 구절과 관용구 안의 단어들 그룹의 분자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번역은 “가장 근접한 자연스러운 동등성을 가진”(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 발신자 언어 메시지를 목표로 했다. 그는 메시지 표현이야말로 수신자 언어로 자연스럽게 맞아들여가야 한다고 보았다. 나이다의 내용 동등성 번역은 다음과 같은 우선 조건을 추천한다. 1) 상황적 일치는 동사적 일치보다 우선한다. 2) 내용 동등성은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에 우선한다. 3) 크게 읽었을 때 들려지는 언어가 기록된 언어에 우선한다. 4) 청중의 요구가 언어의 실제 형태보다 우선한다.

이 방법론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대중적 언어를 사용한다. 또 다른 전략은 통상(common)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 동등성 번역과 평범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두 접근은 어떤 의미에서 양립할 수 없다. 내용 동등성은 번역자들에게 목표 언어의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번역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통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그 범위가 제한된다.

내용 동등성 접근은 본문에 어느 정도 충실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이것은 형식 동등성 번역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용 동등성은 Living Bible 같은 번역본을 만들어냈다. 나이다는 후에 ‘내용 동등성’이란 용어가 오해되어 왔다고 느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Living Bible 같은 번역 때문이었다. 어떤 번역자는 ‘역동적’(dynamic)이란 용어가 충격과 호소력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의 관점에서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정의했기 때문에, 후에는 이 용어를 대신 쓰기 시작했다. ‘기능 동등성’은 *From One Language to Another*(1986)에서 소개되었다. 그가 강조했던 번역의 접근성이 갖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번역은 가능한 자연스러워야 한다. 번역된 문학이나 외국 것처럼 들려서는 안된다. 2) 수신자(receiver)에 초점을 맞춘다. 번역자는 독자들의 문화와 문학적 배경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3) 어떤 언어에서라도 수신자 입장에서 다른 경험들과 다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5. <제4부: 내용 동등성의 함축성>

나이다에 있어 중요한 번역 이론은 내용 동등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의 분석 단계는, 본문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작은 단위로 잘라서 잘 전달되고, 발신자 언어에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번역자들이 다양한 의미론 단위를 가지고 있을 때 수신자 언어에서 잘 표현되며, 그것들을 재조합해서 새 본문을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잘 전달된 경우, 나이다의 표현으로, 번역은 수신자로부터 반응(response)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반응은 원천 본문을 읽는 독자의 반응과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것이다.

나이다의 접근은, 번역의 초점을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에 두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접근은 그 형식이 단어이든 문법 구조이든 문학적 장르이든, 저자들이 원천 본문 형태를 그들의 메시지를 소통하는 데 사용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보수적인 신학 배경을 가진 많은 번역자들에게는 도전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서 기록과 정경화 과정까지도 지시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이다의 접근이 자신의 신학과 상충한다고 생각했다. 불가피하게 그들의 신학적 견해 때문에 몇몇 번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심지어 성서공회까지도 나이다의 이론과 실재를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방법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믿었다. 결국 번역은, 성서 저자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의사를 소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야 가능하다.

내용 동등성 방법을 사용한 번역들은 성서를 평신도들이 이전엔 실제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오래된 번역들은 선교사에 의해서든, 원주민에 의해서든, 형식 동등성을 추구했고, 결국 자연스럽게 들리지도 않았고, 이해하기 쉽지도 않았다. 본문의 의미를 회중에게 설명하는 것은 전문가들(신학적 훈련을 받은 선교사, 목회자, 복음전도자)의 역할이었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은 이 상황에 도전을 주었다. 회중과 개인들은 이제 성서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 성서는 더 이상 전문가가 읽는 책이 아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 통용 언어 또는 대중 언어 번역은 분명히 이로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미 성서를 보유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대중 언어 성서는 성서에 친숙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뺏어나갔다. 겨우 최근에 복음화된 언어 영역에서는, 대중언어, 내용 동등성 번역이 분명 형식 동등성 번역 숫자보다 많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 성서 번역의 주요 추진력은 성서공회와 SIL이 이루어낸 쾌거였고, 통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번역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예로 Today's English Version (TEV), the Versión Popular (VP), the Francais Courant (FC)은 수백만 권이 팔리고, 해당 언어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번역 성서가 되었다. 내용 동등성의 목표는 독자들이 성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서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번역조차 독자들을 늘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문화적, 신학적, 역사적 정보를 담은 노트를 추가해서 성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NIV Study Bible (1985) Good News Study Bible (1997) 등의 스테디 성서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6. <제5부: 말씀을 널리 전하기>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나이다는 번역자를 위한 핸드북 시리즈를 발간한다. 브래처(Bratcher)와 그는 처음에 공동으로 저작을 했다. 2000년까지,

전체 신약성서 시리즈와 구약의 2/3가 발간되었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에게, 이 핸드북은 단권으로 훌륭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그는 선교사들의 번역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Customs and Cultures* (1954)를 발간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학술적 저널이 발간되어 성서가 역동적으로 번역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또한 *Practical Anthropology*(PA, 1953)라는 문화적 이슈들을 다룬 저널이 ABS에 의해 창간되어,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선교에 관련된 글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어서 발간된 *Message and Mission* (1960), *Religion across Culture* (1968) 등은 커뮤니케이션의 인류학적 컨텍스트를 다루기도 했다.

1939년 네덜란드성서공회가 125주년 되던 날, 각국의 성서공회는 모여서 성서번포와 우수한 번역을 위한 협동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의 결정 5일 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고갈로 성서 물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1946년 13개 성서공회가 모였다. 그 결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y: UBS)의 결성을 의결했고, 이와 함께 번역자를 위한 저널 *The Bible Translator*가 발간되기도 했다.

7. <제6부: 성서를 진지하게 대하기>

19세기 초반부터 성서공회는 성서 번역에 있어 주석적, 사본적 통합성에 주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출간한 번역들이 학문적 주류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번역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에 가장 근접하길 원했다. 성서공회는 만약 그들이 모든 교회를 섬겨야 한다면, 이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의 해석에 매여 있으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당파성이나 부실한 학문성을 반영한다면 그들의 신뢰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관심이 노트나 주석이 없는 성서를 출판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나이다가 그의 내용 동등성 접근을 강조하기 시작했을 때 생겨난 주요 갈등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설명했다. 성서공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번역이 본문 자체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나이다는 성서에 대한 충실성이 (형식이 아닌) 의미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나이다는 훌륭한 번역은 훌륭한 주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생들을 중요 신학교에 보내 정규과정을 수학하도록 했고, 번역 작업은 훌

를 통한 성서적 학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확신 아래 성서학자들을 등용한다. 브래처(Bratcher), 뉴먼(Newman), 피콕(Peacock), 아리게아(Arichea) 등의 초기 컨설턴트들은 모두 성서학자로도 탁월한 신임을 얻었다. 그들은 나이다를 상당 부분 도왔고, *The Bible Translator*에서 광범위한 저작을 했다. 번역자 핸드북은 성서학자와 언어학자를 한 팀으로 묶어 작업하였다. 성서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번역자 핸드북은 성서공회가 번역자들에게 주는 기본적인 지침을 담은 내용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교회와의 연결성을 통해 신앙의 지침서인 성서의 권위를 지지받으며 현장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 그리스어 신약 성경 프로젝트(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는 1949년에 시작되어, 정확히 기록된 이문(variants)들을 모아서 다른 학자들이 그 집적물을 활용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락펠러 재단 등의 재정 후원과 수십 명의 학자들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출간된 것은 누가복음뿐이었다. 나이다의 생각은 국제위원회를 만들어, 세계적인 학자들이 본문 연구에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원래 본문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다. 메츠거(Metzger)는 나이다를 도와 위원들을 선정했다. 그 결과 1966년에 Greek New Testament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후 세계적으로 성경의 기본으로 채택되었으며, 학생들에게도 가장 대중적인 본문이 되었다. 나이다는 위원은 아니었지만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조율하고 조정했다.

8. 〈제7부: 새로운 관계들, 좀 더 접근하기, 더 앞선 방향들〉

나이다의 이같은 열정은, 한동안 오해와 적대감으로 바라보기만 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서 번역을 함께 하는 작업에도 빛을 발한다. 이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로마 가톨릭의 인물은 추기경이었던 비(Bea)와 그의 동료였던 애봇(Abbot)을 꼽을 수 있다. 성서 번역에 대한 필요는 가톨릭에도 자극이 되었고, 교황은 애봇에게 성서공회의 작업을 연구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150개의 언어로 새 번역을 하는 작업을 돕도록 명령하기에 이른다. 애봇은 UBS가 가진 전문가와 인프라에 힘입어 연합작업을 통한 가톨릭의 성서 번역 작업에 힘을 싣기를 원했다. 전통적인 구교와 신교간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성서공회를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으며, 학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우호적이며 유용한 연구 작업이 행해졌다.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화 된 지역의 정교회 교회 또한 성서 번역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나이다는 동유럽 교회 지도자

들을 만나고 사업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정책의 상이성, 정경의 기준 등의 난점들이 존재했지만, 나이다의 열정과 외교력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대상을 향해서도 항상 연합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아울러 공산화의 현장이었던 중국에까지 성서 번역 사업의 영향은 뻗어갔다.

30년간 성서공회는 새로운 독자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체가 현대화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문서 이외에 스크린, TV, 비디오, 영화, 컴퓨터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맹인들에게도 라디오 등의 청각 매체나 CD-ROM, DVD 등의 시각 매체를 사용할 때, 성서에 대한 이해가 훨씬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대적 매체 기반의 작업들은 유용하긴 하더라도, 결코 성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제8부: 인간이며 학자인 나이다>

인간 나이다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아마도 그가 성서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쉽게 읽히도록 하는 데 평생을 들여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사실은 인간 나이다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나이다가 성서 연구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과 인격 또한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 없이는 그러한 위대한 변혁을 성서 번역 세계 안에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이다는 아주 성숙한(well-rounded)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다재다능함, 관심사와 업적의 다양성에 계속 놀란다. 가구를 직접 만드는 목수로서, 400그루의 장미 관목을 키우는 원예가로, 욕심스럽고 솜씨 좋은 사진가로서, 80대 후반임에도 하이킹을 즐기는 건강 광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아내 알테아(Althea)와 사별한 후, 1997년 뛰어난 번역자이며 통역가인 엘레나(F. M. Elena)와 재혼했는데, 그녀는 유럽위원회의 번역 팀을 이끌었다. 나이다는 어느 팀을 맡든 그 가운데 봉사와 우정 정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번역 컨설턴트 팀을 만들고 그들 대부분을 미국 외곽 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했던 1940-50년대의 ABS 인사 매뉴얼과 규정들은, 당면한 매일의 상황들을 대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때 위원회 의사록은 건강 관리, 자녀 교육, 여행, 급여 등에 관해 나이다가 취한 많은 특별한 조치들을 보여준다. 나이다는 꾸밈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고, 필요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행동을 추천하곤 했다. 그는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최고의 작업을 할 수 없다

는 것을 책임자에게 주지시켰다. 그의 관용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그의 일을 즐겼다. 그리고 일은 그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게다가 그의 즐거움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염성이 있었다. 나이다가 뽑은 모든 컨설턴트는 그 감정을 또 재생산해 냈다. 그는 그들 모두가 그의 사명 감각을 가지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 작업을 즐길 만하게 만드는 환경을 창조했다.”

나이다는 번역이야말로 자연스럽고,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 입장은 그가 그리스어를 배우던 UCLA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스승은 문자적 번역(literal translations)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나이다는 그의 스승인 엘링턴(J. Ellington)이 1991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원문을 부당하게 다루는 것(do injustice)일 뿐 아니라 영어 사용에 나쁜 습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편지에 썼다고 술회한다. 미시간대학에서의 언어학과 인류학 연구는 두 번째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 나이다는 ‘만약 누군가가 다른 언어와 문화에 있는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그의 문화적 요소를 완전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10. 〈제9부: 다른 목소리들, 다른 단어들〉

나이다의 내용 동등성 또는 기능 동등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폭넓게 수용되었다. 1)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접근법이기에 번역이 잘 이해되기를 원하는 성서 번역자에게는 쉽게 수용되었다. 2) 방법론이 규범적이었는데, 따르기 쉬운 단계들로 구성되었다. 3) 다양한 언어적 이견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할 만 했고, 다양한 교육 수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했다. 4) 그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고, 번역자나 독자들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5) 초반에 고도로 숙련된 컨설턴트들로 팀을 효과적으로 구성했다. 6) ‘최근접의 자연스러운 동등성’(Closest natural equivalent) 번역은 원주민 번역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나이다의 영향으로 성서 번역으로 학문적 관심사를 바꾸기도 했다. 바(J. Barr)는 그 한 예인데, 그는 교회를 위한 현대 영어 번역의 함축성을 세밀히 관찰했다. 기독교는 예수의 실제 언어를 보존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번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실에 접촉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반 리우웬(R. C. Van Leeuwen)의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본문 형태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반영했다. ‘번역은 실수할 수 있는(fallible) 인간의 해석을, 우리와 실수 없는(infallible) 말씀 사이에 끼워넣

는 것이다’는 그의 말은 번역의 역동적 기능을 잘 설명해준다.

11. 평가 및 제언

인간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언어이다. 언어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삶의 도구이며, 자기가 속한 사회를 바라보는 창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어떠한 내용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작업임이 분명하다. 체계와 배경이 다른 언어가 번역되어 그 의미가 서로 소통될 수 있다는 자체가 신비에 가까운 일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의 경전,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기타 일반 문학의 번역작업과는 다른 특별한 수고를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하나님께서 처음 베푸셨던 말씀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번역하는 일이야말로 조심스럽지만 진정 가장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성서 번역을 거론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장(巨匠) 나이다의 삶과 그 영향력을 보여준다. ‘성서가 쓰여진 대로 두라’(Let the Words Be Written)는 책제목처럼, 그는 원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해내기 위해서 그가 견지했던 번역의 방향을 잘 전해주고 있다. 나이다에게 있어서 단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점이 아니며 의미의 면이기에, 다른 언어체계에 있어서 상응하는 단어들의 의미론적 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원문의 한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수신자 언어에 합당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은 고정된 축어적 일치성 즉 한 단어를 사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보다는 그 문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이다의 선구자적인 작업을 통해, 수많은 번역 작업이 수신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성서를 멀찌감치 여기던 많은 이들이 그가 정립한 번역의 이론과 작업 안에서 번역된 성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의 중요한 근거를 얻게 되었다. 일찍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했던 그의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이자 목회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번역 이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했던 나이다가 소중히 여긴 번역의 원칙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성경 번역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우선 중시된다는 점과 25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이 많은 어른이나 어린아이의 언어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두 원칙은 성경 번역이 아닌 모든 번역 작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청년층의 언

어를 선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인문학의 대중화 및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대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다는 성서 번역뿐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기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 자랑스런 신학인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인 스타인(P. C. Stine)은 미시간대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68년 나이다에게 선발되어 UBS의 번역 프로그램을 맡았으며, 아프리카의 번역 컨설턴트로, 또 후에는 번역 작업의 국제 업무 조정자로 30여 년간 일했던 사람이다. 그는 함께 동역했던 나이다의 삶과 번역의 세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장별로 무척 세밀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나이다의 기존 저작들을 친절히 요약해주고 있기에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훌륭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초기 SIL이나 ABS의 설립 초반의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기에 심지어 신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성서 번역의 역사를 차분하게 목도할 수 있게 한다. 나이다에 관련된 다음 책들을 함께 읽어본다면 성서 번역의 역사 가운데 남아 있는 그의 기여 정도와 의미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H. J. Ma, *A Study of Nida's Translation Theory* (Teaching and Research Press, 2003); C. George, *The History of the Reina-Valera 1960 Spanish Bible* (Morris Publishing, 2004).

<주요어> (Keywords)

나이다, 성서 번역, 내용 동등성, 기능 동등성, 미국성서공회

Nida, Bible translation, dynamic equivalence, functional equivalence, American Bible Society

<Abstract>

Book Review-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P. C. Stine, Leiden: Brill Academic Press, 2004)

Dr. Ji-Mi Yu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reviews P. C. Stine's book *Let the Words Be Written: The Lasting Influence of Eugene A. Nida*. The book introduces the bible translator E. A. Nida, in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setting as it also surveys the history and the background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 concerning the works of bible translation. It is composed of 9 chapters and using the bible translation history of United Bible Societies as its background, it reflects upon Nida's various achievements.

Nida is a well-known linguist and the pioneer of the innovative translation theory called "dynamic equivalence". And thanks to his work, many bible translators and scholars continue to obtain good results and advancements in their scholarly work. Today, Nida's theory greatly influences Bible translations engaged throughout the world. Although there were many barriers to overcome in constructing a new frame and a system for bible translation, Nida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such organizations as UBS, SIL, and other various committees.

This book is useful in examining an important theory of bible translation and uncovering the dynamic scholar that developed it.